

추모 예배 순서

집례_담당 교역자 또는 가장

예배시작 집례자

오늘은 고 ○○○님께서 소천하신 날입니다. 고인은 천국에 가셨지만 아직 도 우리의 가슴 속에 고인의 모습이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묵도 드리심으로 추모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다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찬 송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같이

-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동하게 하시네
-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예나 험한 산길 헤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 주님 다시 뵈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장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 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봉독 고린도후서 5:1-2 다같이

-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말 씬 영원한 아버지의 집 집례자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고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의 삶을 "장막 집"에 비유하며,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집의 소망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어떻게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 땅의 삶은 장막과 같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현재 삶을 "땅에 있는 장막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은 이동식 텐트와 같아서 영구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임시 구조물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편 103편 15-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들의 꽃과 같으니 바람이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곳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고인은 이 땅의 삶에서 여러 수고를 감당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장막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집

바울은 장막 집이 무너지л 때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수고와 고통의 끝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평안의 자리입니다. 고인이 지금 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곳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은 끝이 없는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3)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고통에만 매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탄식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영원한 집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간절히 품는 자세입니다. 고인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약속합니다. 고인이 걸어가신 길을 본받아,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장막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л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은 잠시일 뿐이며,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인은 이제 그 집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고인이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땅의 수고와 눈물은 하늘의 집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믿음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 도 집 레 자
 주기도문 다 같 이